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청주 삼겹살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최씨 고집
수상내역	2012 청주 삼겹살 스토리텔링 공모전 업소이야기 부문 최우수상
작가	예성일
공모분야	업소이야기
기획의도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도 조금은 느리지만 정도를 지키며 사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유쾌한 해피엔딩의 이야기로 풀고자 한다.

【 최씨 고집 】

예성일

1. 시장전경

손님이 뜸한 시장의 모습이 보여진다.

군데군데 아예 문을 닫은 가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자리를 지키는 상인들의 모습에도 생기가 없다.

고기를 둘러맨 남자가 정육식당 이라는 간판을 올려다보고는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갸웃 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카메라가 남자의 뒤를 따라 들어간다.

2. 삼겹살집 주방

주인 최 씨가 숙성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 자리를 바꿔주며 일일이 기록을 살피고 있다, 고기를 매고 들어온 아들이 큰 도마 위에 고기를 올려놓으며

아들 “아! 그렇게 정성 들여 숙성시키면 모하냐구여!!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어차피 이번 달에도 가게 세 못주면 이 가게도 빼줘야 하는 거 손해 그만 보고 오늘 이라도 장사 접자니까요. ”

 “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 열어 놔 봤자 손해만 더 늘어난다고요. 이제 고집 좀 고만 부리시고 제말좀 들으시라니까요. ”

 “ 그러지 말고 우리도 이참에 냉동으로 바꾸자고요. ”

“ 그럼 이렇게 밑반찬 많이 안해두 되구요. 대충 파절이
하고 중국산 김치만 올려도 된다니까요. “

묵묵히 고기를 살피던 아버지가 험악하게 인상 쓰자,

아들 “그럼 차라리 분식집을 하던 지요, 암튼 이렇게 해가지곤
안된 다니까요.”

계속해서 반응이 없자 포기한 듯.

아들 “ 후 ~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며칠 안 남았네요. 남은
고기로 잔치를 하시던 요리를 하시던 상관 안할 께요. “

계속 해서 잔소리가 이어지자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며
한 마디 한다.

아버지 “ 그 놈 가서 지 불일 보래두 팬스레 옆에서 지랄이야,
할일 없으면 화덕에 연탄이나 피어놔. “

아들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가게 뒤로가 화덕에 연탄을 놓으며 궁시렁
거린다.

아들 “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 어차피 평생 해온 일인데 이깟 며칠을 못 참겠냐! “

아버지가 있는 가게 쪽을 보며,

아들 “ 예~ 하실 때 까지 하자고요 어차피 있는 고긴대 어찌
겠어요. 팔던지 먹던지 하자고요 까짓 안 되면 역전 앞에
노숙자들에게 실컷 구어 주던 지요. “

3. 시장 초입

식당을 찾아 헤매는 두 사람
인적 끊긴 시장을 두 남자가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고 있다.
비교적 젊은 남자가 앞장서서 뭔가를 찾고 나이든 남자는 뒤에서
불만스런 표정으로 따라 오고 있다.

송대간 “ 야! 잘 좀 찾아봐 점심도 걸려서 배고파 죽겠다니까!
하여간 이런 지방 무대 잡지 마라니까 꼭 말을 안 들어.
내가 서울 아님 그래도 경기도 쪽이나 미사리 이런데 잡으
라니깐 으이그!”

매니저 혼자 들릴 듯 말 듯 궁시령 된다.

매니저 “ 아니 누가 서울 좋은 거 몰라서 그러나 인제는 안 불러
주니까 그러지, 누군 뭐 이렇게 멀리 운전하러 오는 거
좋은 줄 아나? “

송대간 “ 야! 이게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야! 안 불러 줘도 가서 일을 받아오는 게 매니저지 이게
그냥 일을 거저먹으려고 그래, 너 나랑 너무 오래 돼서

내가 누군지 잊었나 본데 나 송대간이야. 이래봐도 왕년에는 여기저기서 서로 모셔가려고 했던 몸이야 왜이래!”

앞에서 식당을 찾던 매니저가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한마디 한다.

매니저 “아! 그렇게 잘나갈 때 사람 관리좀 잘하지 이제 와서 ...”

가수 못들은 척 하며 말을 끊으며

송대간 “ 아! 언능 밥집이나 찾아봐! ”

앞서던 매니저가 뭔가를 보고는 기뻐 소리친다.

매니저 “ 아! 형님 저기 식당하나 있는 대요. ”

4. 가게 안

아들이 무료하게 티브이를 보고 있다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뭔가 하고 심드렁하게 쳐다보다가 손님인걸 알자 반색 하며 일어선다.

매니저가 테이블에서 의자를 빼주자 가수가 약간은 거만한 자세로 앉는다.

가수와 매니저는 벽면에 메뉴판을 찾아 보려하지만 가게의 벽에는 아무것도 없다. 웬지 불안한 느낌에,

송대간 “ 야! 여기 어째 좀 그렇다, 나가서 다른 데로 가자. ”

나가자는 가수의 말을 의도적으로 끊으며

매니저 “ 저~ 저희가 아직 식사를 못해서 그런데 식사 될까요? ”

주방 안쪽에서 최 씨가 나오며 이들을 보며 통명스럽게 이야기 한다.

최씨 “ 고기 집에 와서 뭘 식사 타령이여 고기 먹구 나중에 밥
볶아 먹으면 되지. “

통명스런 주인의 태도에 기분이 상한 송대간이 지지 않고 한마디
한다.

송대간 “ 아니 뭘 가게에 메뉴판도 없구 그냐고. ”

주인 “ 어차피 오늘 지나면 안 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먹어. ”

매니저 공짜라는 말에 반색 한다.

매니저 “ 형님 연예인 써비슨가 봐요? ”

송대간 “ 뭐여! 지금 나한테 상한고기 먹으라는 거 아니여? ”

상한 고기란 말에 최 씨가 인상을 쓰며 고기 자르던 칼을 도마에
꽂는다. 분위기가 험악해 지자 매니저가 안절부절 하며,

매니저 “ 형님 그냥 드시자고요 지금 나가봐야 휴게소에서 김밥

이나 먹어야 되는데 그냥 한 끼 때우고 가자고요, 형님
자꾸 까탈 떨면 확 그냥 저 혼자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

가수 그제야 한풀 꺾여 조용해진다.

아들이 손님상에 불판을 올리고 은박지를 깐다.

송대간 “ 에이! 요즘 환경 호르몬 안 좋다는데. ”

아들이 파절이 양파절임 간장깻잎 등 반찬을 준비 한다.

시골의 조그만 가게에 비해 정갈하고 다양한 밑반찬이 나오자 내심
놀라는 눈치다. 주인이 고기를 썰어 가지고 상으로 온다.

가수 배가고픈지 고기를 바로 올리려 하자 주인이 집게로 손등을
친다.

최씨 “ 기다려, 판이 달궈져야 고기가 맛있게 구워지는 거야. ”

판이 어느 정도 달궈지자 주인이 고기를 한줄 한줄 올린다.

잠시 뒤 고기가 조금 익은 듯하자 가수가 고기를 젓가락으로 뒤집
으려 하다가 또 한 번 집게로 맞는다.

최씨 “ 돼지는 한번만 뒤집어서 먹어야지 자꾸 뒤집으면 맛있어! ”

계속 되는 타박에 자존심이 상한 가수가 한마디 한다

송대간 “ 아따 삼겹살 하나 먹는데 참말로 무슨 한우 등심 먹는
것처럼 그래 썬나 몰러? “

최씨 “한우등심만 격식이 있는 줄 알어! 삼겹살도 제대로 먹는 법이 다 따로 있는거여! 보니까 어디 가서 맨날 언 수입 삼겹살만 먹었겠구만!”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를 내며 보기 좋게 노릇 해지자 주인이 손수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다. 먹음직하게 익은 고기를 보자 송대간도 조금은 마음이 풀린 듯하다.

송대간 “아니! 그렇게 삼겹살에 대해서 잘 아는 양반이 어째 고기 구면서 소주는 안주나 몰라 삼겹살을 소주 없이 어떻게 먹냐고?”

주인 통쾌하게 웃으며 ,

최씨 “그래 그건 댁 말이 맞네! 삼겹살에는 소주가 있어야지. (아들을 향해) 여기 소주좀 내 와라.”

송대간 “거 보아하니 나랑 연배도 비슷해 보이는데 같이 한잔 하십시다. 더 이상 올 손님도 없을 것 같은데 같이 한잔 하십시다.”

아들과 다 같이 앉아 삼겹살을 곁고 있다.

송대간 “아니 근데, 그냥 잘라서 구어 먹기만 하면 되는 삼겹살에 뭐가 그렇게 유난을 떤대?”

최씨 “그건 잘 모르고들 하는 소리야 삼겹살은 그냥 잘라서 바로 먹는 고기가 아니야! 저온으로 며칠간 숙성시켜야 제대로 된 고기 맛이 나고 또 구울 때도 센 불에 익혀야 육즙이 빠지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야! 거기에 이런 각종 야채나 절임쌈 하고 같이 먹어야 제 맛이지. “

고기가 다 떨어지자 가수와 매니저가 젓가락만 들고 뺄줄해 하자 아들에게,

최씨 “안쪽에 있는 목살 좀 나와 봐. 너무 두껍게 썰면 퍽퍽 하니까 알맞게 1센치가 조금 안되게 적당히 썰어. “

아들 “아 알았다고요 저두 벌써 십년이 넘게 고기만 만졌다고요. ”

매니저는 잘 들어 왔다면 호들갑이다

매니저 “형님 거 봐요 제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고기를 드신 다니 까요. ”

아들이 고기를 가져오는 사이 상에는 불판이 바뀌고 반찬도 바꿨다. 이번에는 주방에서 연탄 화덕을 가지고 나와 석쇠에 목살을 올린다.

최씨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연탄에 구운걸 좋아하지, 아마 옛날 못살던 시절에 연탄 냄새를 맡고들 자라서 그런지 숯불에 구운 것 보다 연탄에 구운걸 더 좋아들해. ”

연탄불에 익어가는 고기의 모습이 중간 중간 보여진다.

최씨 “ 옛날에는 삼겹살이 서민들이 일하고 먹는 고기였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나면 목에 먼지가 끼서 삼겹살 기름으로 먼지를 빼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야, 배운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무식한 소리라고들 했지만,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 지 돼지고기랑 야채랑 해서 이렇게 먹으면 중금속을 중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하니 말이야! ”

송대간 “ 아따 고기가 약이네 그러, 아니 근데 뭘 시장에 사람이 이렇게 없대? ”

최씨 “ 요즘 이런 시장이 다 그렇지 뭐 여기도 저쪽에 마트가 생겨 놓으니 사람들이 죄다 그리로만 가는 통에... 고기 집도 체인점이다 무한리필이다 해서 요즘 우리 같은 집은 다 문 닫을 판이야. “

송대간 “ 어째 신세가 나랑 똑 같네, 한참 경기 좋을 땐 여기저기서 불러 주더만 요즘은 썩썩한 젊은 애들한테 밀려서 어디 갈 때도 별로 없구 말이여! “

카메라 밖을 보면 비가 내리기 시작 한다

비오는 밖을 한번 보고 매니저를 한번 보더니 매니저 에게,

송대간 “ 비도 오는데 너두 한잔해라 어차피 바쁜 일도 없는데



한잔 하구 널 올라가지 뭐! ”

매니저 반색하며

매니저 “ 형님 그게 낫겠쥬! 비도 오는데 위험하게 가느니, 쉬었다
가세요 형님. ”

빗소리가 커지며 네 사람의 목소리를 묻는다.

화면에는 고기가 구어 지는 다양한 모습이 보이고 각종 쌈에 싸여
지는 모습 등이 보인다.

5. 며칠 뒤

아들이 한결 차분해진 모습으로 가게에서 장사 준비를 하고 있다.

아들 “ 아버지 오늘이 진짜 마지막 날이 네요. 뭐 어차피 손님
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버지 별 반응 없이 고기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고기들을 살핀다.

6. 시장입구

한가하던 시장에 한 무리의 외지인 들이 무리지어 나타났다.

한가하게 있던 상인 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들 보며 웅성 된다.
무리의 리더인 듯한 사람이 시장 안쪽으로 앞장서 걸으며 두리번
거린다.

리더 “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이쯤 어딜 텐데? ”

저 안쪽에 있는 가게 간판을 보고는,

리더 “ 아! 저기다 회원님들 저겁니다, 거봐 맞게 왔다니 까요.
자 가시죠! ”

리더를 따라 회원들이 줄지어 가는 모습에 시장사람들은 의아하게 쳐다본다.

7. 가게 안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아들이 놀란다.

아들 “ 무슨 일들 이세요? ”

리더 “ 고기 집에 고기 먹으러 왔지요. ”

회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자리를 잡고 앉자 리더가 주문을 한다.

리더 “ 우선 삼겹살부터 적당히 주시고요 목살도 주세요. ”

아들 오랜 만의 손님에 놀란 듯하다가 신이 나서 상차림을 하기 시작한다.

8. CUT

테이블 마다 다양한 밑반찬이 차려지고 있다. 이상하게도 누구하나 반찬에 손을 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상차림을 다한 아들이 한쪽

구석에 서서 이런 환경을 신기한 듯 쳐다본다.

상차림이 끝나길 기다린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카메라를 꺼내 들고는 사진을 찍기 시작 한다. 반찬 하나하나를 찍으며 즐거워한다.

9. 가게 밖

시장상인들이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신기한 듯 보고 있다.

10. 가게 안

가게 안의 손님들 모습이 보이고 누군가 꺼낸 노트북에서 일전에 들렸던 가수가 고기를 먹는 사진들이 보인다, 매니저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이다

11. 주방

아들이 부지런히 고기를 썰며 아버지를 쳐다보며 히죽 거린다.
아버지도 아들을 보며 웃다가 갑자기 정색 하며

최씨 “ 고기 두껍다 그거 버리고 다시 썰어! ”

아들 “ 에이! 아부지! ”

울상이 된 아들의 얼굴과 내심 흐뭇해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차례로 보이고, 왁자지껄한 가게 안의 다양한 모습이 스케치 된다.

북적되는 시장의 활기찬 모습 위로 엔딩 타이틀과 자막이 올라 간다.